

코트라 예산 첫 9000억 돌파 수출 1조달러 위해 전폭 지원

AI·경제안보·신흥시장 집중
수출스타 500 육성 전력 질주
글로벌사우스 시장 공략 강화
경제안보·공급망 대응역량 제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2026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원을 넘어선 91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6667억 원) 대비 37% 늘어난 규모로, 수출 다변화와 경제안보 기능 강화에 주력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

먼저, 코트라는 내년에 수출기업 지원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수출액 1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중추기업을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설하고 402억원을 편성했다. AI·방산 등 유망산업 기업 100개사를 매년 선정해 해외마케팅, 인증, Post R&D 등 전주기 지원을 묶어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00개사 이상의 기업을 육성해 수출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류 하이웨이'를 구축해 한류와 결합한 K-소비자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 유통망과 협업에 더해, 국내 유통망과 한류 소비재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492억원을 배정했다. 한류 선호도가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대·중소 소비재 유통망



코트라 본사 전경 /코트라

자체 해외 진출과 함께 K-식품, K-뷰티 등 소비재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공략도 본격화한다. 코스타리카와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해외무역관을 신설하고 420억원을 확보해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을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집중한다. 현지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에 앞장설 예정이다. 중남미·중앙아시아 등 신흥권에서 새로운 수출 기반을 확보해 구조적 수출 확대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첨단

산업 해외인재유치, 방산 및 경제통상 대응 등 경제안보 분야 예산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424억원 규모의 '긴급지원바우처'를 지원해 관세 피해·분석, 대체시장 발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수출기업 대응 역량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도 크게 확대한다. 내년 관련 예산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667% 늘렸다. 특히, 신규로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촉진사업' 291억원을 활용해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품목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 강화에 투입한다. 경제안보 품목 모니터링과 수입선 다변화 자금도 59억원 확보했다.

코트라는 이외에도 AI 선도기관으로서 국가대표 AI 전시회 개최(20억원), 'AI 수출 비서' 개발(39억원)을 통한 무역투자 시스템의 AI 대전환 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으로, AI 3대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소중한 예산이 수출 기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내년에도 수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수출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 수출 5강 시대를 앞당기고,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시스템반도체 인재 1400명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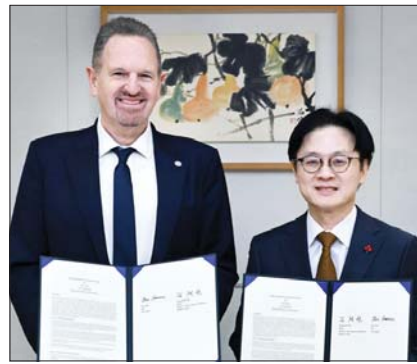
산업통상부, Arm과 MOU 체결
실전형 교육 플랫폼 Arm 스쿨 신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IP 설계 기업 Arm과 손잡고 국내에서 2026년~2030년까지 향후 5년간 1400명의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5일 Arm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가칭' Arm 스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르네 하스 Arm CEO와 회담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Arm은 소프트뱅크가 약 90% 지분을 보유한 세계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으로, 애플·구글·MS 등 빅테크와 삼성전자·엔비디아·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의존하는 핵심 컴퓨팅 아키텍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IP는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미리 회로로 설계해 둔 설계 블록을 말한다.

이번 MOU는 한국 내 반도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비롯해 △기술교류 및 국내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협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R&D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세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Arm 스쿨'은 Arm의 글로벌 IP 기술과 국내 교육기관·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한 실전형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의 설계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기반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광업 생산성·안전 강화에 1095억 투입

광해광업공 '민간지원 사업' 통해
경영부담 커진 광업계 실질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내년 광업 생산성 제고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총 1095억원 규모의 민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채광장 심부화와 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국내 광업계에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광해광업공단은 지난 5일 원주 본사에서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간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광산 현대화·정밀조사·안전시설·용자지원·ESG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광산의 생산량 확보를 위해 경도굴진 및 광산 현대화 사업 등에 55억원, 국내 핵심광물과 석회석, 규석 등

산업원료 광물의 부존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탐광시추 사업에 35억원을 지원한다.

또 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갯내 통신장비, 긴급대피 및 추락방지시설 등 광산안전시설에 134억원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법정 의무 안전교육, 광산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광산업체·광산물 가공업체·석재가공업체 등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에는 총 800억원의 융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ICT 기반 생산성 향상 장비(스마트마ining), ESG 경영을 위한 친환경 설비를 우선 지원하고 중소광산에 우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SG 컨설팅, 고용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로 해외공략 시동

에이치투와 수출 공동협약 체결
개발부터 운영 전과정 긴밀 협력

한국남부발전이 국산 에너지저장시스템(VFBESS)을 앞세워 해외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에이치투와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VFBESS)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산 ESS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바나듐 흐름전지는 화재 안전성이 높고 장시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해 신재생 기반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에 적합한 기술로 꼽힌다. 남부발전과 에이치투는



남부발전 오윤석 아시아개발부장(오른쪽)과 에이치투 한신 대표가 지난 5일 '국산 흐름전지 ESS 수출 공동지원 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이러한 기술적 강점을 앞세워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국산 기자재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부발전의

해외 IPP(독립발전사업자) 네트워크 및 사업개발 역량과, 에이치투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국산 바나듐 흐름전지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사업 기회 및 현지 파트너 발굴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 ▲제품 타당성 검토 및 프로젝트 구조 설계 ▲투자 조달 방안 ▲기술·운영 지원 체계 구축 등 사업 개발부터 운영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특히 단순한 기술 수출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과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주요 시장의 정책·제도·수요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중부발전, 110MW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

롯데케미칼 등 2곳과 유가적 협력

한국중부발전이 롯데케미칼, 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손잡고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5일 충남 보령 본사

에서 롯데케미칼, 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1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사는 각 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을 나눠 유가적으로 협력한다. 중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전기 중개자로서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전력을 확보·공급하는 총괄 매니지먼트를 맡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전력 중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기업인 롯데케미칼은 중부발전으로부터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의 RE100 이행을 가속화하고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씨밋에너지얼라이언스는 공급자 역할을 담당한다. 대호지 솔라파크(70MW) 등 이번 계약의 핵심 발전 자원을 조성·운영하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책임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

농축산식품부, 5년간 100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마을의 난개발·위해요소 정비 및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는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정비 하거나 이전한다. 이후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선정된 지구에는 개소당 5년간 총 10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난개발·위해시설 정비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상주 덕산지구의 경우, 그간 악취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은 폐축사 등의 철거만으로도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곳에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해 주민들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 충북 증평 화성지구는 30년간 방치돼 각종 오염물질 발생 및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장기방치 건축물의 철거를 확정했다. 철거 후 해당 부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각 지구에서 농촌공간의 정비와 재생을 목표로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